

ACC 하늘마당, 쓰레기 투기 등 몸살

광주도심 속 명소로 각광...늦은 밤까지 인파 북적 곳곳서 음주·흡연 뒤 쓰레기 투기...시민 의식 실종

“다들 술 마시고 있어서 음주가 안 되는 줄 몰랐어요”
지난 25일 오후 10시 광주 동구 대의동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하늘마당
해가 지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자 토요일 밤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로 붐볐다. 하늘마당 내 잔디밭 곳곳에는 돗자리가 발 디딜 곳 없이 빼곡했다.
친구·연인·부부·동호회·대학 동기 등은 잔디밭에서 도심 속 피크닉을 만끽하고 있었다. 시민들은 일행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평일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달랬다.

과도한 음주에 따른 소음과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로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동명동에 사는 김모(48·여)씨는 “백주 1~2잔 마시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늦은 밤까지 큰 소리로 시끄럽게 하는 취객들 때문에 제때 잠 못 드는 주민들이 많다. 인파가 몰리는 주말에는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대의동 주민 박모(27)씨는 “하늘마당이 나들이 명소로 자리잡아 지역 경제에 기여한 면도 있지만, 불법투기 쓰레기로 인한 악취와 미관 문제는 골치덩어리다”고 밝혔다.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던 한 여대생은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어 쓰레기 공식 수거 장소로 알았다”면서 “음주·쓰레기 투기 등 금지사항을 알리는 표지판이 있지만, 다들 이를 지키지 않아 도덕적으로 무너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늘마당의 관리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ACC로, 구청의 역할은 불법쓰레기 수거에 그치고 있다.
지역 경찰은 예방 순찰과 범행시 실물 설치를 통해 하늘마당 내 질서 유지·범죄예방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ACC도 하늘마당 주변에 자체 관리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ACC 직원들이 일몰 이후(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씩 2인 1조로 근무하고 있지만 밀려드는 인파에 비하면 역부족이다.
질서 유지 활동을 하던 ACC 직원은 “늦가을인 10월까지의 하늘마당 방문 인파가 불린다”면서 “음주·쓰레기 투기가 광범하게 일어나고 있어 일일이 단속하기 어렵다. 오히려 술 한 잔도 못 하느냐며 화를 내는 시민들도 있어 난감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간혹 옛날 보이는 중·고등학교들도 술·담배를 하는 것 같지만 적국 제지하기 어렵다”면서 “관할 구청과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덧붙였다.

‘불법 주차에 격분’ 차에 불 지른 50대 검거

광주 광산경찰서는 26일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자동차방화)로 A(5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40분께 광주 광산구 우산동 한 도로에서 1t 트럭과 승합차 아래에 쓰레기 더미를 놓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다.
불은 상인에 의해 진화됐으나 차체 엔진룸 등이 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택시를 잡기 힘들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술을 마시고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A씨가 재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임형택 기자

해남서 주행 중 BMW 차량 화재

주행 중인 BMW 차량에서 또다시 불이 나 차체가 모두 탔다.
25일 오전 10시23분께 전남 해남군 송지면 편도 2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A(42)씨의 BMW 520d 차량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21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차량이 모두 탔다. 화재 직전 A씨가 골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이 난 차량은 2018년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소방당국에 “조수석 밑에서 연기가 나 교차로 안전지대에 차를 세운 뒤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차량 결합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살해 가담 국제PI와 부두목 동생 등 구속

50대 부동산업자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제PI와 부두목의 동생 A(58)씨와 공범 B(65)씨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B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비슷한 시각 광주지법 영장전담부도 이들을 도와 부동산업자를 차량에 감금해 폭처법상 공동감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제PI와 부두목의 동생 A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역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됐다.
B씨는 지난 19일 광주 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부동산업자 C(56)씨, 국제PI와 부두목 조모(60)씨, 공범 D(61)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이들과 함께 다음날 사체를 양주시의 한 주차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에서 “어린 녀석이 반말을 해 화끈에 구둑발로 차고 폭행했다”며 단독 범행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정황상 동석 인물 모두가 범행에 개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국제PI와 부두목인 형 조씨, B씨 등 3명과 공모해 지난 20일 오전 1시께 광주의 노래방에서 의식이 없는 C씨를 차량에 태워 서울 논현동까지 데리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형의 연락을 받은 뒤 지인에게 외제차를 빌려 노래방 앞으로 간 뒤 부동산업자 C씨를 태우고 서울까지 이동하는 5시간 동안 감금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국제PI와 부두목 조씨를 만나러 간 C씨가 납치된 것 같다는 가족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색에 나서 지난 21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 양주시청 인근 공터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숨겨 있는 C씨를 발견했다.

음주운전 신고자 폭행 40대 입건

광주 서부경찰서는 24일 자신의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한 행인을 때린 혐의(도로교통법 위반·폭행 등)로 김모(4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0시께 광주 서구 한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면허 정지 수치)인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10m 가량 운전한 혐의다.
또 같은 시간대 음주운전 의심신고로 한 A(38)씨의 얼굴에 휴대전화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행인 A씨가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며 민투하던 중, 경찰에 신고하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인호 기자



무더운서울 무더위가 이어진 주말인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 분수대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전남경찰, 안전띠 집중단속...사고다발 지역 집중배치

전남경찰이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매주 화·금요일 안전띠 집중 단속을 벌인다.
전남지방경찰청은 26일 전파식 안전띠 착용의무화 정착을 위해 화·금요일 홍보와 함께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별 단속은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사고 다발지역과 고속도로·간선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집중 진행된다.
교통안전의 날에는 전 경찰력을 동원해 계도와 단속활동을 병행한다.
이 밖에도 경찰은 찾아가는 안전

교육과 생활밀착형 온라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사고원인별 중점 위반행위를 주제로 선정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환 기자

꽃 원산지 허위표시 화훼업체 13곳 적발

캐이션·국화 등 꽃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화훼업체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24일 가정의 달 꽃 수요가

상승하는 시기를 고려 중국산 꽃을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한 화훼업체 1곳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며 12곳은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